

# “제2회 양돈인의 날(SWINE DAY)”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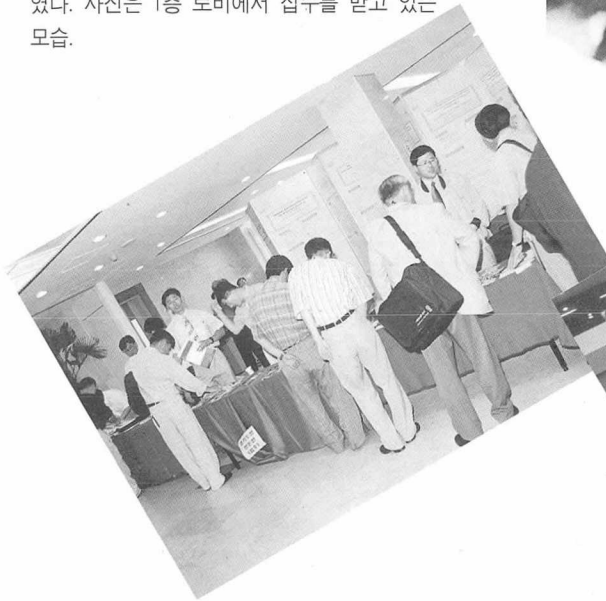
제2회 양돈인의 날(SWINE DAY) 행사가 지난 7월 28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관악캠퍼스 삼성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농림부와 경기도, 도드람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와 세계축산학회가 주관하여 ‘고품질 돈육생산 기술의 최근 개발동향’이라는 주제로 치뤄졌다.

지난해 첫 해와는 달리 제8회 세계축산학회와 발 맞추어 치뤄진 이번 행사는 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최신의 고품질 돈육생산 기술에 대해 국내 저명한 학자 뿐만 아니라 세계축산학회에 참석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고품질 돈육을 위한 새로운 학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아침 8시 30분부터 1층, 2층의 두 발표장에서 계속된 세미나는 최신 돼지육종, 사양, 영양, 사료, 질병, 분뇨처리 및 위생분야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국내외에서 최근에 개발된

- ▶ 주로 세미나를 위주로 치뤄진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석학의 해외 연구자료를 많이 발표되었다.
- ▲ 참석자들이 음식을 들면서 환영사 및 우수 양돈가 시상식을 지켜보고 있다.
- ▼ 350여명의 많은 인원이 이 행사에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사진은 1층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모습.



고품질 돈육생산기술의 동향에 관한 심포지움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발표장 밖의 복도에서는 합성 아미노산, 항생제와 성분제 등 많은 관련논문들이 포스터 발표 형식으로 전시되어 이채로운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오후까지 계속된 발표회가 끝나고 저녁 6시부터는 양돈인의 날 조직위원장인 한인규 교수의 환영사와 함께 우수 양돈가 포상 기념 축하연이 치러지면서, 양돈업계 종사자, 관계자들 간의 의견교환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날 우수 양돈가로서 장관상을 수상한 사람은 본회 김현병 이사(방역대책분야), 본회 윤대열 화성·수원 지부장(양돈전산화분야), 권오상 씨(단지육성분야), 손중서 씨(생산성향상분야) 4명이며, 뒤이어 현 일본축산학회장인 S. Sugano 교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350여명의 많은 양돈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행사는 최신의 고품질 돈육생산에 관한 자료를 얻고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축산학회와 더불어 축산인들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세미나를 위주로 한 이번 대회는 양돈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양돈인의 나아갈 바를 생각하는 진정한 양돈인의 날의 의의가 퇴색된 듯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養豚**



◀양돈인의 날(SWINE DAY) 조직위원장인 한인규 교수가 참석자들에게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일본축산회장 S. Sugano 교수



▲본회 김현병 이사 (충남도협의회장)가 방역대책분야의 농림부 장관상을 받고 있다. 이날 시상은 이관용 축산국장님이 대신했다.



▶본회 윤대열 화성·수원 지부장이 이관용 농림부 축산국장으로부터 양돈전산화분야의 농림부 장관상을 수여받고 있다.